



제 9 회

국제 가정학회 보고

표 경 조

1. 참석하게 된 이유와 재정관계

1957년 4월 나는 국제가정학회 (International Home Economics Association)로부터 1958년 7월 28일—8월9일 사이에 미국 Marryland University에서 개최되는 제 9회 총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이 총회는 5년만에 한번씩 열리는 대회로서 이번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주최국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번 상의하던 끝에 10월 중앙위원회에서 주월영 (朱月榮) 최이순(崔以順) 두분을 파견 대표자로 선출 하였다. 단 여비는 학회로서는 비용이 없으므로 공적으로 알선은 해 보겠으나 불가능 할 때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후 나는 회장의 입장으로써 이 두분을 보내려고 2월말까지 한국 정부측과 외국 기관 여러 방면으로 교섭 해 보았으나 전부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부담으로는 도저히 막대한 비용을 염출 하기가 불가능 함으로 두분은 포기 하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생각한 바가 있어서 O. E. C.의 농림부 교도 고문관 Dr. Oul과 가정과 교도 고문관 Miss. Strange를 찾아가 우리의 실정을 이야기 하였다. 이때 Dr. Oul은 농촌 가정 교도 국제지도자 강습회가 5월 15일부터 3개월간 미국에서 개최되는데 당신이 그동안 우리 교도사업을 위하여 협력하여 왔으므로 앞으로 전국적 실천에 있어서 많은 자도를 해 주어야 하므로 두분중의 한분하고 들어서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번 다녀 왔음으로 나 대신 두사람을 꼭 보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Dr. Oul은 이번 대회는 5년만에 열리는 국제학회임으로 당신이 회장으로써 꼭 참석하여야 하므로 당신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3인의 여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연구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해주도록 부탁하여 준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3인이 국제학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이고 재정적 혜택 이었다.

2. 출발과 강습회 일행

국제 농촌 교도 사업 강습회를 위해 요구되는 기일은 5월 15일부터 이었다. 그러나 원래 늦게 수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I. C. A 원조에 의하여 외국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 결제가 늦어서 도저히 5월 15일까지 맞도록 떠나지 못하게 되고 6월 20일에 김포 공항을 떠나게 되었다. 도중 Seattle에서 제자와 친구들을 만나 밥과 김치의 대접을 받아 비행기 멀미를 회복하게 되었다. 22일 Washington에 도착하여 보통 외국인이 2주일동안 밟는 Orientation Course도 지나지 못하고 23일 정부기관 사람들을 찾아 인사를 하고 대략앞으로 지나야 할 Course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이튿날 23일 새벽차로 Philadelphia로 가서 제 49회 미국 가정학회총회(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보다 1개월 9일 먼저 와서 임히 Course를 밟고 있는 국제 일행을 만났다.

이 일행은 Australia 1, Sweden 1, Brazil 2, Chile 2, Guatemala 2, Jamaica 1, British Guiana 1, Korea 3 의 13인에 도중 Egypt 1, Iraq 1, 의 두사람도 같은 Course를 밟기로 하였다.

3. 국제학회의 기간(期間)

삼단계로 구분 할수 있다.

(1) 대회전 시찰여행(The tour of Pre-Congress in U.S.A) 대회가 시작하기전 일주일 동안 미국내 유명한 교육기관 행정

기관 산업기관 명소등을 시찰하도록 되었음.

(2) 본대회(本大會) 7월28일—8월2일.

(3) 대회후 시찰여행(The tour of Post-Congress. in Canada). 대회가 끝나고 1주일 동안 캐나다내의 여러 교육기관, 행정기관 산업기관, 명소등을 시찰하게 되었음. 그러나 우리 국제 교도 생활지도자 회 일행은 우리들의 예정 관계로 이 대회전후의 시찰여행은 하지 못하였다.

4. 대회장(大會場)

Marryland University in Marryland U. S. A.

5. 참가국과 참가자의 수

60개국, 1,041명

참고로 적어보면

Australia	1	Denmark	13
Iceland	1	Austria	4
Ecuador	1	India	6
Belgium	2	England	83
Indonesia	6	Bolivia	1
Firland	12	Iran	1
Ba Ha Mas	1	Germany	5
Irag	2	British, Guiana	4
France	80	Ireland	1
Canada	88	Ghana	2
Italy	1	Ceylon	1
Guatemala	2	Israel	5
Chile	2	Haiti	1
Japan	5	Cuba	11
Honduras	1	Jordan	1

Korea	4	(김봉란씨가 자비로 참가)
Turkey	3	Nyasaland 1
Lebanon	1	Pakistan 7
Uganda	1	Luxemburg 2
Philippins	7	Union South Africa 5
Martinique	1	Puerto Rico 1
United State of America	489	
Mexico	2	Scotland 4
Venezuela	1	Nepal 1
Sierra, Leone	2	Wales 2
Netherlands	10	Sweden 71
Yugoslavia	3	Newzéaland 4
Switzerland	11	The West Indies Fedlation 2
Nigeria	1	Taiwan 2
Norway	1	Thiland 3

이상 60개국 1,041명

6. 용어(用語)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7. 논제(論題 Theme 이번대회의 주로논의 될 문제)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계가 있는 가정학 교육”

“Education in Home Economics Relat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Individual Countries”

8. 본대회(本大會)의 순서와 내용 제 1 일 7월28일(월요일)

【오전】 일반 등록

【오후】 2:20—4:00PM. 개회 및 일반대회 (Orientation Meeting)

A. 소개……대회장 Miss. Gibson…Dean of Scotland Home Economics College.

(1) 대회 간부 진영(Headquaters of Congress)

(2) 각국 대표자들 (Delegations of International)

B. 설명……대회총무 Miss. Mildred Horton Executive Sec-

retary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국제 학회장 Miss. Gibson

(1) 대회의 순서와 진행에 대하여

【야간】 8:30 P.M, 제1일 본론회(First Plenary Session)

【논제】 “오늘날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the World Today)

A. 환영사(1) 미가정학회장……Miss.

Beulah V. Gillaspie Dean, Home Economic College Purdue University

(2) 환영사…캐나다 가정학회장…Miss, Marjorie Kennish, Professor, Mount Allison Univ. Canada

(3) 환영사…대회 개최대학 총장…Albin O. Kuhn.

B. 강연—로무로…주미 비올빈 대사

General Carlos P. Romulo…Philippine Ambassador to the U. S. A



문제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의 교량적 역할”(The United Nations-Bridge to Peace) C. 환영 다과회(Reception)·전회원
제 2 일 (7월 29일 화요일)

【오전】 9:00 am. 12:15 pm. 제2 본론회
(Second Plenary Session)

A. 연구발표

(1) “효과적 가정학 교육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Soci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quired for Effective Home Economics Education) Gudrun Akre·Norway 대표

(2) “기본적 자료의 획득에 있어서 연구의 역할”(The Role of Research in Obtaining Fundamental Data) Hazel K. Stiebeling·미국 농림부 소속 가정학 연구소 소장

B. 다과회·Coffee Break·Maxwell House Coffee 회사에서 Service 하였다.

C. 토의회(Discussion). 이하 각분과로 등록하여 참석 한다.

(1) “카리큘럼 작성에 대하여” (a) 6세-12세 아동을 위하여 (b) 13세-17세 소년을 위하여”

Curriculum for (a) Children Aged 6-12 (b) Young People Aged 13 to 17

(3) “소년과 성인의 학교외 지도”(Out of School youth and Adults)

(3)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Community Development)

(4) “선생 과 가정교도사의 훈련”(Preparation of Teachers and Extention

Leaders)

(5) “교사 감독에 대하여”(Supervision of Teachers)

(6) “연구에 대하여”(For Research)

(7) “전달의 방법”(Means of Communication)

이상 각 분과중 자기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분과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오후】 견학 2:00-5:00 pm.

이것도 여러 방면으로 3일간 가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 인원 관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기가 가고싶은 곳을 미리 사무처에다. 등록을 해 두어야 편리 하다.

1단 미가정학회사무소 국립주택연구소



여 흥
공 동 주 최
(미 가정학회와 캐나다 가정학회)

제9회 국제 가정학회 보고

- 2단 미국농림부 가정학연구소
- 3단 보건교육사회부(이곳에서 미국의소리 방송국도 볼수있다)
- 4단 고등학교 가정과시설.미국회 의사당
- 5단 식품잡화상. 식품배급소
- 6단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저녁】 1:00—10:00 pm.

- A. 닭 불고기회(Chicken Barbecue Dinner)
- B. 여흥(Entertainment...미국 가정학회... 캐나다 가정학회

제 3 일 7월30일 수요일

【오전】 9:00—12:30 p. m.

제 3 본론회(Third Plenary Session).

- A. 연구발표회
- 논집...“가정학 지식의 응용”(Symposium...Applicaion of Home Economics Knowledge).

(1) “직업 분야의 지도자여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In Education for Professional Leadership- Patricia Caleman.....Newzealand 대표.

(2) “소년 교육에 있어서”(In Education of Youth).....Chiyono Matsushima.....Japan대표.

(3) “성인을 위한 교육 계획”(In Edcation Program for Adults) Pergrouhi Najarian.....Lebanon 대표.

B. 토의회(Discussion) 전날의 계속
【오후】 견학(Field Trip) 전날의 계속

【저녁】 미국 가정에 초대 만찬회.
(Dinner American Home)

제 4 일 (31일 목요일)

【오전】 9:00Am.—12:00Am. 제4 본론회

A. 연구발표회

(1) “가정학의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공헌”

(The Contribution of Home Economics to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world today.) Jacgueline de Lujet.....France 대표.

(2)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가정학의 공헌”

(The Contribution of Home Economics to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the Family) MaMa Socorro, Lacot.....Puerto Rico 대표.

(3) “확장하는 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가정학의 공헌”

(The Contribution of Home Economics to the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through Expending Carrers) B. Tara, Bai.....India 대표.

【오후】 토의회(Discussion) 전일의 계속

【저녁】 환영 파티(Banquet)

제 5 일 (8월 1일 금요일)

【오전】 9:00 am—12:00 noon.

견학(Professional Field Trip)전일계속

【오후】 2:00—4:00 pm . 제5 본론회(Fifth Plenary Session)

A. 연구발표.

(1) 토의회의 종합보고,
“변천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가정학의 교육”

(Education in Home Economics for Changing Social and Econmic Conditions)..... Discussion Group.

(2) “국제 가정학회의 실행임원과 상임

위원의 사무”

(Transaction of the Executive and International Permanent Council) Miss. Isobel. S. Gibson...대회장.

(3) 결의(決議) Resolution.

【저녁】 8:00—10:00p.m. 음악회 (Musical Evening).

제2미군 군악대(Second Army Band

제 6 일 (8월 2일 토요일)

【오전】 9:30—11:00 a.m, 제6본론회 (Sixth Plenary Session)

A. 최종인사들

(1) 우리들의 대회 주간(our Week Together) (a) Edna P. Amidon...미국 교육성 가정교육국장 (b) Mary A. Clarke...캐나다교육성 중등교육감, (c) Marguerite Badoux...서서 대표,

(2) 우리의 과제(Our Work Ahead) (a) Winifred Hargreaves. 영국교육성 왕실학교 감독자. (b) 폐회 인사.

B. 송별다과회.

이상의 순서로써 만 6일간의 본회이었고 전후 시찰기간을 합하여 3주일간의 대회이었다. 이 대회 전반을 통하여 느낀바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최자 측의 활약.

주최자측인 미국과 캐나다의 양국 가정학회장을 비롯한 간부, 회원들의 협력과 활동에 감탄하였다. 특히 이 대회가 미국 내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미국학회의 간부들과 일반 회원들의 협력과 활동은 국제대표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참고로 그 동원된 인원과 준비를 위하

여 말은바 임무들을 소개하던 대략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회 운영을 위한 위원과 미국가정회 간부 18명.

(1) (Organizing Committee for Congress and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eadquarters Staff).

(2) 대회 간부들을 위한 접대(Headquarters Hospitality) 10명

(3) 환영초대연(Banquet) 4명

(4) 토의회 (Discussion Group) 9명

(5) 전시회 (Congress Exhibits) 6명

(6) 음악회 (Musical Evening) 2명

(7) 안내와 접대(Information and Hospitality) 10명

(8) 불고기회(Chicken Barbecue Dinner) 8명

(9) 대회전 시찰여행(Pre-Congress Tour) 5명

(10) 대회중 견학(Professional Trips) 6명

(11) 환영회(Reception) 6명

(12) 미국학회로써 대회에 제출할 전시회(U.S. Exhibits)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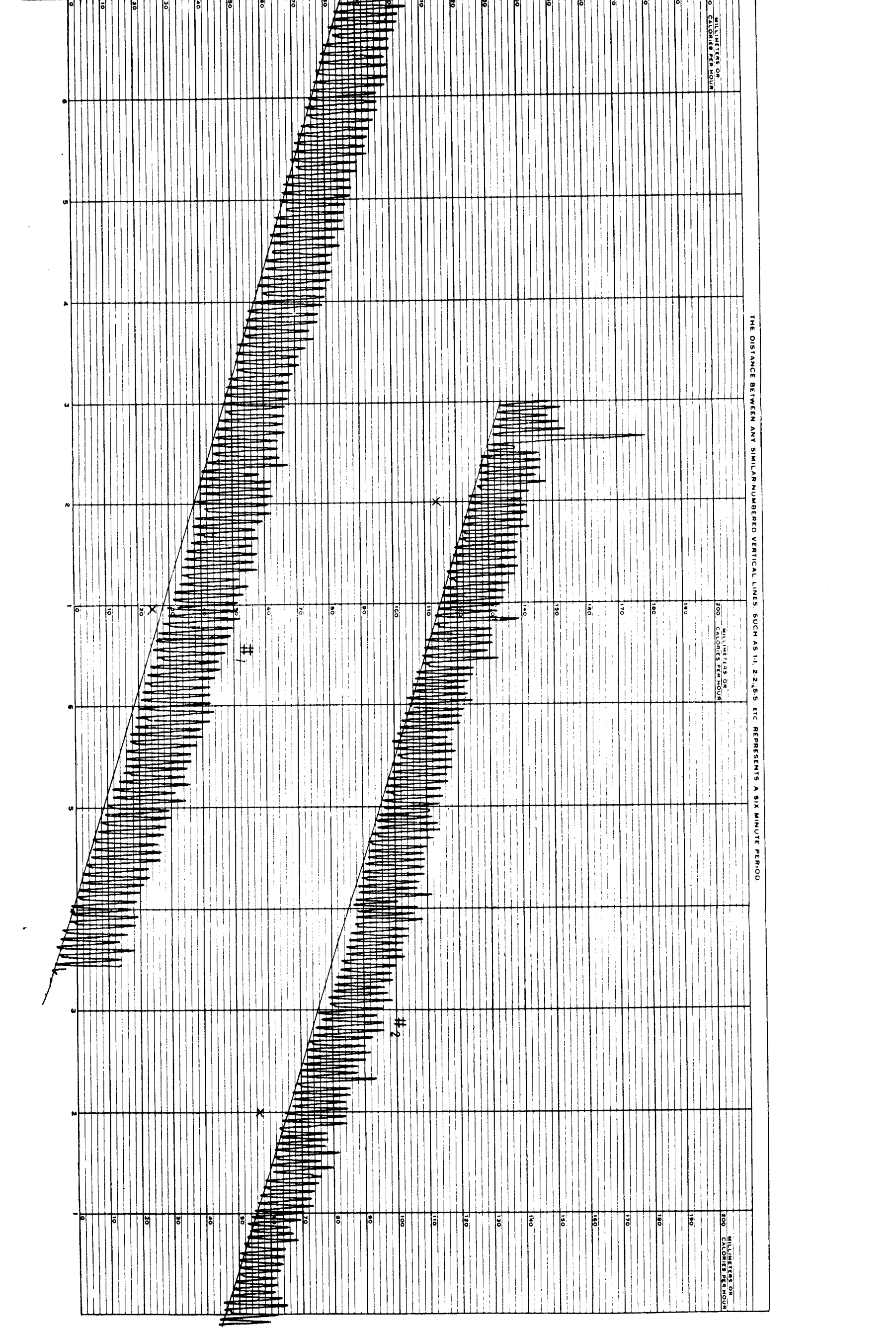
이상 미가정학회 회원들의 동원만도 회장 총부 합하여 60명이나 되었다.

(1) 미국 정부와 사회 기관의 협조.

여성들이 하는 이 국제대회를 위하여 미국대통령과 캐나다 수상의 축사를 비롯하여 정부 사회기관의 물질 양면의 협조는 용이 주도한 그들의 계획과 실천을 더욱 너 빛 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생산기관에서 대회가 개최되는동안 여러모로 협조를 하여 주었다.

0
200
400
600
800
1 LITER
1200
1400
1600
1800
2 LITERS
2200
2400
2600
2800
3 LITERS
3200
3400
3600
3800
4 LITERS
4200
4400
4600
4800
5 LITERS
5200
5400
5600



General food 회사의 Maxwel Coffee House 에서는 본대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매일 전회원 1000여명을 위하여 Coffee 와 파자의 Service 를 해 주었고 Delmova Poultry Industry 에서는 또한 1000여명에 대하여 매인당 통닭 한마리씩을 화덕과 숯불을 준비하여서 대학내 교정에서 직접 구워서 그 밖에 다른 음식과 가추어서 흥미 진진한 하로 저녁을 먹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디 밭에서 3.3 5.5 작반하여 먹는 동안에도 바이올린과 기타의 음악도 들려주는 순서까지도 준비 해 주었다. 그밖에 Cresta Blanca 회사에서 환영 만찬회때의 축배의 술을 제공한것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생산기관에서 공동으로 합자하여 그성대한 만찬회의 비용(매인당 15\$ 1041명분의 15,615\$)을 제공한것 이러한 전대를 위하여 동원된 각 생산기관에 있는 가정학 전공의 사무원의 수만 하여도 228명이나 되도록 그들의 열렬한 협조에 놀라웠고, 이토록 권위를 세운 미가정학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게 되었고 이르기까지의 50년의 역사를 거듭하는 동안 역대 간부들의 노력을 상기하게 되는 동시에 우리 대한가정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많이 느낀 바가 있었다.

(3) 대회 장소를 빌려준 학교측의 편의. 약 10일간의 이 대회를 지나는 동안 전 대학을 개방하여 여러 건물을 쓰게하였고

1000여명의 숙식의 해결, 넓은 교내의 통행을 위한 교내버스의 운행, 그 많은 회원들의 우편물 취급에 대한 편의 등 방학중이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일사 정연하게 운영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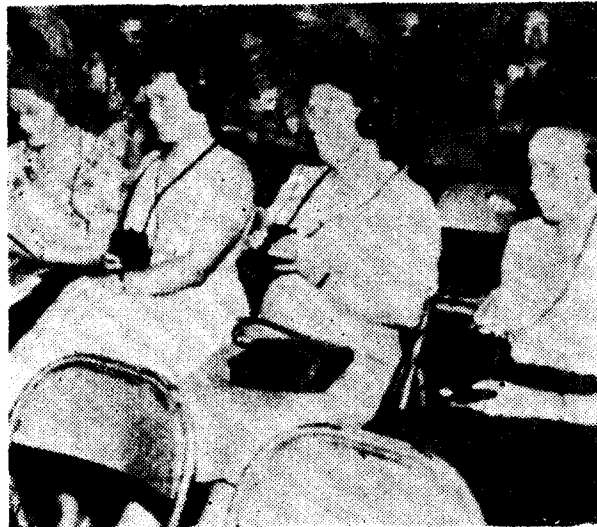
(4) 대회장 내에서

(1) 각국의 국기

대회장 입구에는 각 참석국의 국기가 꽂혀 있었고 우리 태극기도 엄연히 존재해 있음에 이토록 나라의 존재가 좋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2) 4개국 용어

60개국의 대표들이라 대략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 스페인어 4개국어로 알아들을 수



자기 나라 말로 듣고.있는 각국 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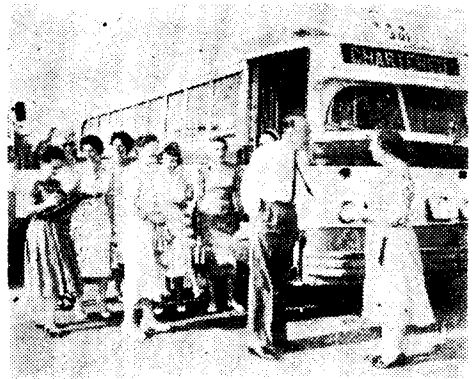
있도록 공통용어인 영어로 발표하면 직각 다음 3개국어로 통역이 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교환대의 시설과 각개인이 쓸수있는 Receiver 의 장치가 대회장에 되어 있었다.

(3) 전시회

각국의 문화 특히 가정학과 가정생활에 관한 출판물, 도표, 사진, 통계, 실물, 풍속도, 교재 등의 전시회가 대회장 한편에 전시되었었다. 참가국이 다 전시 하지는 못하고 약 15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 한국도 전시 준비를 하지 못한 나라의 하나이었다. 이것은 본래 전시회를 한다는 예고도 없었고 또한 우리의 출발이 이 대회가 본 목적이 아니고 국제교도강습회에 참가하는것이기때문이었다.출발 자체도 비용관계로 불확실하였던 까닭으로 그리 준비도 못하였지만 그래도 한국을 소개하기위하여 정부기관등에 자료를 구하러 다녀도 별로 가지고 갈만한 것을 얻지 못하였다. 이점 다음 기회에 국제회합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참고가 되기 위하여 쓰는 바이다. 떠나기전 늦어도 반년전에 미리 정부 관계 기관에 청하여서 국가적 자료를 구하고 각 가정과 대학과 여학교측에 연락을 하여서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생산으로써 해외에 선전할만한 자료들을 되도록 많이 수집하여서 떠나기전 약 이개월전에 배편으로 부쳐두는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비행기 여행에도 편리하다. 겹하여 부탁하는 바는 문교부 공보처를 위시한 관계 정부기관과 각 대학 교측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가는사람을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의 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회중에도 뒤풀이 자기나라의 해외 공관을 통하여 여러가지의 선전, 인쇄물이 비행기편으로 부쳐 오기도 하고

해외 공관측 사람들이 여러가지 보도와 연락을 하여 주기도 하고 또 참가 회원들 가운데는 본국의 보도기관의 사람들도 많이 따라 왔었다.

(4) 미국 가정의 저녁초대(Dinner in American Home) 미국회원들을 제외한 552명의 외국 대표들을 대회장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인접한 각 회원들의 가정에 몇명씩



자기집에 배당된 손님들을 찾고 있는 남편 저녁 초대를 하였다. 이 때가 가정의 식구가 총 동원이 되어서 부인과 자녀들은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남편들은 차를 가지고 자기집에 배당된 손님을 마지하러 먼곳에 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러한 일은 미국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이며 또 한편 평 회원의 그들이 학회의 이 계획에 얼마나 많이 협조하고 있는가를 엿보여 주었고 결국은 한사람 한가정의 생활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충실을 다 하고있다는것을 느끼도록 하여 주었다.

(5) 복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원들은 공통적으로 양복들을 입었다. 그중에는 자기나라의 옷을 꼭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일행은 더욱이 이 대회기간은 우리의 옷을 입었다. 팔을 거의 내어 놓고도 더위들 하는 양복에 비하면 비록 모시로 만든 적삼들이라도 긴 소매에서 받는 더위는 말할수 없으나 외국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시원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Look at the Korean dress" "How cool it looks." 이러한 말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인사였고 그들사이의 말 들이었다. 그만큼 한복의 모양이 거치장스럽지 않고 옷감이 시원스럽게 보이는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6) 만찬회(Banquet)

1041명의 회원들이 모인 휘황 찬란한 성대한 잔치로써 Washington 에 있는 Sheraton Park Hotel 에서 열리었다. 각국대표들은 이날만은 각기 자기나라의 정복들을 입고 나왔음으로 말이 복장 전시회의 느낌을 주었다. 장내 정면에는 삼계단의 높은 식탁을 준비하여서 각국의 정대표한 사람씩 앉게 되고, 양편 벽에는 참가국 60개국의 국기가 꽃혀 있었는데 정면 위에서 바라본 오른쪽벽 정중간에 우리 태극기가 유난히도 다른나라 기보답도 크게 잘 보이도록 눈에 띄우게 꽃혀 있었다. 우리 일행중 아무도 우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국기를 구하여 꽃아 둔것과 같이 다른나라의 국기도 것처럼 가



(개인 가정에 초대 받은 각국 대표들)

져다 꽃은 그들의 활동력에 놀라웠고 워싱턴 한복판 어느 큰 Hotel 연회장 속에서 우리의 국기를 본다는것은 마치 마라톤 대회와 태극기를 상기하였고 국가의 존재가 이토록 중대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감격 하였다.

이회가 시작되어 끝나는 동안까지 관현악대의 은은한 멜로디는 더 한층 회를 아름답게 하여 주었다.

더욱이 한가지 특기할것은 이 회를 사회한 사람이 캐나다 대표의 국제학회 상임이사로서 [영어로 회장 기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4개국어로 자유자재로 통역하는 어학의 재조를 가진데에 가정학을 전공한 우리학회로서는 감탄할 존재였고 일동의 칭송이 자자 하였다.

(7) 대회 주제와 연구 발표에서 느낀것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계

가 있는 가정학의 교육”

“The Education in Home Economics relat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이러한 주제 하에서 발표된 강연과 토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A. 가정학의 공헌

(1) 가정학 교육을 통하여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보다 낱게 발전 시키는 공헌을 한다.

(2) 가정학 교육을 통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주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지식을 주므로써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B. 이러한 공헌이 있는 가정학 교육을 요망적으로 하기위하여는

(1) 더욱 더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

(2) 이러한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더욱 더 갖기 위하여는 기본적 자료를 조사하고, 획득하여서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C. 이렇게 연구한 가정학지식을 적용 하려면.

(1)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청년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성인들을 재교육 하여야 한다.

D. 이상 교육의 효과를 내려면.

1. 가정학교육의 교과과정 (Curriculum) 을 그들 정도와 사정에 따라서 가장 적당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6세—12세아동을 위한 교과 과정.

(2) 13세—17세 소년들을 위한 교과 과정.

(3) 청년과 성인들의 학교의 지도를 위한 교과 과정.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2. 교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1) 가정과 선생과 가정교도사의 자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재 준비가 필요하다.

(2) 가정생활에 관계가 있는 생산기관, 상업기관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가정학 전공자들의 충분한 지식의 준비와 전달하기 위한 재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에 필수품인 세탁기, 전기냉장고, 부엌기구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과 여러가지 교재 준비)

3. 행정기관의 감독.

(1) 가정과 선생에 대한 감독.

(2) 가정과 교육에 대한 장학.

4. 전달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1) 청각을 통한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

(2) 시각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

이상과 같은 면밀 주도한 계획으로써 가장 학구적이고 철저한 연구의 발표이었고 토의사항의 결론들이었으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가정학의 지향할바를 제시한것으로 우리나라 가정학 교육을 위하여 많은 참고적 지식을 얻었다.

앞으로 4년후 1963년에는 불란서 파리에 서 다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논문을 발표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 한편 그동안의 가정과 교육의 발전된 여러모와 우리나라의 생활의 발전상이 국제전시회장의 한 부분을 점령하여 발표 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0월 15일)